

천안함 사건 의견서

천안함 사고지점 수심 24m vs

공식폭발원점 수심 47m

(진정한 사실관계 vs

허위의 공식사고경위)

대법원 제2부 재판부 귀중

2020년 11월 6일

목차:

1. 상고심 재판부에 천안함 사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인용한 합조단과 군(軍) 주장 공식사고경위의 허위성과 천안함사건의 진정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1. 대법원 재판부에 천안함사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여러차례에 걸쳐 항소심 재판부에 <천안함사건 의견서>를 제출했던 의견서 제출 인입니다. 검찰의 상고로 이뤄지게 된 상고심의 재판부께서 천안함 사건 전반에 대한 바른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천안함사건 명예훼손사건 공판에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공히, 천안함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절단, 침몰되었다고 충분히 증명된다고, 합조단의 조사결과와 군(軍) 주장 공식사고경위를 100% 수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좌초 후 잠수함 등과 충돌했다는 신상철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윤강열 재판장님)는 또한 본(本) 의견서 제출인이 전임 항소심 재판부(김형두 재판장님) 때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천안함 사건 의견서>에서 명백히 드러낸 천안함 사고의 진상(真相) 역시 전혀 돌아보지 않았습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100% 수용한, 침몰원인을 포함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조단의 조사결과와 군(軍)의 공식사고경위란 100% 거짓된 것입니다.

군(軍)에 의해 조작(造作)된 「공식 사고 경위」의 토대 위에서 이뤄진 합조단의 조사결과는 전혀 사실과 다른 거짓에 불과하다는 소리입니다.

바른 판단을 해야할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이 허위사실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라도, 먼저 군(軍) 주장 공식사고경위와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과연 천안함 사건의 <진정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지, 초기 사건전개과정에서 군(軍)의 거짓이나 말바꾸기, 조작(造作)은 없었는지를 확실히 판별해야 했음에도, 이를 전혀 판별하지 못했습니다. 사법부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거짓과 진실을 판별(判別)할 수 있는 지성(知性)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인 ①허위의 사실인지, ②피고인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③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 ④비방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4단계 중에서, 아예 첫 번째 단계인 <허위의 사실인지 여하>를 판단하는 첫번째 단계부터 어긋났습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허위의 사실인지 여하>를 판단하는 판단기준으로 삼은 것은 군(軍)에 의해 조작(造作)된 「공식 사고 경위」와 그 토대 위에서 이뤄진 합조단의 조사결과로, 이는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초기 사건전개과정 등에서 군(軍)의 거짓이나 말바꾸기, 조작(造作)은 없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제대로 판별(判別)해서 천안함 사건의 <진정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이후 군(軍) 주장 공식 사고 경위와 합조단의 조사결과 발표가 이 천안함 사건의 <진정한 사실관계>와 부합하는지를 밝혀 사건의 전체 진상(真相)을 드러내야 함에도,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합조단과 군(軍)의 주장 만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천안함 사건의 <진정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밝혀내지 않고서는, 침몰원인 등 천안함 사건 전반에 대하여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기준 위에서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올 수 없습니다. 허위의 판단 기준 위에 서있으면 제대로 된 주장을 오히려 허위(虛偽)로 치부하거나 모르새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전도(顛倒)된 사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천안함이 백령도 서방 수심 47m지점에서 북한 어뢰 공격으로 인한 수중 비접촉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절단, 침몰되었다는 합조단 주장을 앵무새처럼 인용함으로써 발생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검찰 주장은 아예 언급할 가치도 없습니다.

천안함 사고지점 수심 24m vs 공식폭발원점 수심 47m

단적(端的)으로, 국방부와 합참이 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국회 국방위 보고(報告) 등에서 여러 차례 밝힌 <천안함 사고지점 수심>은 24m였습니다. 해경 역시 여러차례 천안함 사고지점 수심(水深)을 25m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조선일보 등 여러 언론매체들은 이를 인용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태, 천안함 사고지점 수심이 24m 등으로 알아 북한 잠수정 등의 침투 가능성이 낮다며 북한의 공격 가능성은 없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 2010년 5월20일 합조단 조사결과 발표 때 공식화된 <소위 폭발원점 수심>은 47m로 그 두배입니다.

그리고 합조단은 이 백령도 서방의 수심 47m의 소위 폭발원점 인근에서 쌍끌이작업으로 북한 어뢰 추진체와 모터를 발견했다며, 천안함은 북한 어뢰 공격으로, 그것도

수중 비접촉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천안함이 두동강나 침몰했다며 북한 공격으로 몰아갔습니다.

[-합동참모본부정보작전처장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

이기식 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 함정 원인 미상 침몰 관련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어제 3월 26일 21시 30분경 *백령도 서남방 1마일 해상에서* 아 초계함인 천안함이 원인 미상으로 침몰된 상황 관련 보고입니다. 어제 상황 발생 현장의 기상은 남서풍이 20노트로 불었으며 파고는 3m였습니다. 수온은 8도였습니다. 선저에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파공으로 침수가 발생하면서 배가 침몰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의 수심은 24m**였습니다. 상황 발생 후 야간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劉承旼 委員

수심이 얼마나 된다고요?

-합동참모본부정보작전처장 이기식
한 30m 정도 됩니다, 지금 위치는.

-劉承旼 委員

썰물, 밀물 때 수심이 어떻게 달라요?

-합동참모본부정보작전처장 이기식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劉承旼 委員

거의 변화 없이 30m요?

-합동참모본부정보작전처장 이기식
예.

-劉承旼 委員

여기 24m라고 보고했는데.....

-합동참모본부정보작전처장 이기식
그것은 처음에 피습된 위치가 그렇다는 겁니다.

-劉承旼 委員

빠진 데, 침몰된 데가 한 30m 정도 됩니까?

-합동참모본부정보작전처장 이기식
예

- 劉承旼 委員

지금 천안함이, 이 배가 혹시 두 동강 났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 합동참모본부정보작전처장 이기식

그것은 지금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 劉承旻 委員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두 동강이 났는지 구멍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전혀 없다 이겁니까?

- 합동참모본부정보작전처장 이기식

예, 그렇습니다.]

2010년 3월27일 오후 3시 개회 국회 국방위 회의록 2페이지/ 35~38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none>

○委員長 金鶴松 수고하셨습니다.

○합동참모본부정보작전처장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 이기식 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 함정 원인 미상 침몰 관련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어제 3월 26일 21시 30분경 백령도 서남방 1마일 해상에서 아 초계함인 천안함이 원인 미상으

발견하였습니다.

이후 2함대에서는 인명구조 초계 및 호위함이 탐색작전을 실시하였으며 백령도에 전개해 있던 해난구조대는 금일 오후 13시 40분부터 구조작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구조작전의 주안은 실종자 탐색, 선체 상태 파악, 침몰원인 규명에 주안을 두었습니다.

현재 참고사항으로 탐색 및 구조작전 지휘권

2

2 제288회-국방제1차

백령도 사고 해역 현장을 직접 확인 방문 중에 있어서 대신 차관이 참석하였음을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립니다.

1. 해군함정 침몰 관련 보고

(15시18분)

○委員長 金鶴松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로 침몰된 상황 관련 보고입니다.

어제 상황 발생 현장의 기상은 남서풍이 20노트로 불었으며 파고는 3m였습니다. 수온은 8도였습니다.

선저에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파공으로 침수가 발생하면서 배가 침몰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의 수심은 24m였습니다.

상황 발생 후 야간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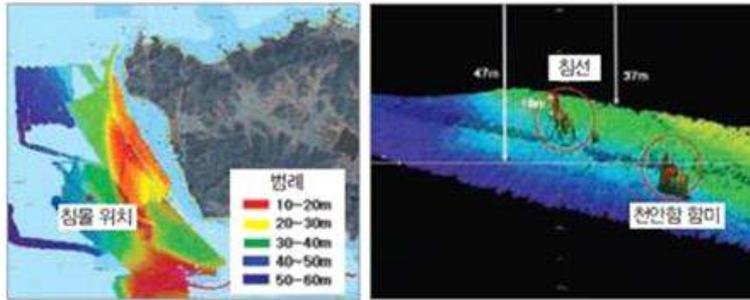
-2010년 3월27일 오후 3시 개의 국회 국방위 회의록 캡춰 사진

[2010.3.29(월) 17:00 국방부 일일브리핑, 이기식 합참정보작전처장 : "함정이 항해를 할 때는 연안에서 얼마나 떨어졌나, 안 떨어졌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수심이 그 배가 다니기에 적합 하냐, 안 하냐, 거기에 따라서 항로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천안함이 있던 그 위치의 수심이 24m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배가 항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함장이 그 항로를 선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https://m.pressian.com/m/pages/articles/61269?no=61269>

(3) 환경적 조건

천안함 사건 발생 위치는 백령도 서남방 2.5km(37° 55' 45"N, 124° 36' 02"E) 지점이며, 수심은 47m이고 해저지형은 <그림 2장-3-7>에서 보는 바와 같다.



<그림 2장-3-7> 사건 지역 해저지형 및 수심

사고 직후에는 천안함 사고지점 수심이 24m 등으로 낮아 북한 잠수정의 침투가능성도 없으며 북한의 공격 가능성이 부인되더니, 나중에는 사고지점(폭발원점) 수심이 47m로 두배로 뿔뿔이 되어 북한의 연어급 잠수함이 음향탐지식 어뢰를 쏘아 수중 비접촉 폭발로 발생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천안함이 두동강나고 함미는 곧바로 백령도 서방 수심 47m에 침몰하고 함수는 4마일(7.4km)를 표류하여 백령도 남쪽 동편 연봉 바위 근처에 침몰하게 되었다는 가소로운 주장을 군(軍)과 합조단이 현재까지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성(知性)이 있다면, 이 변질과 괴리(乖離)를 결코 놓칠 수 없습니다.

바로 이 <천안함 사고지점 수심 24m vs 공식폭발원점 수심 47m>이 천안함 사건의 <진정한 사실관계>와 <허위의 공식사고경위>를 단적으로 대비(對比)시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건의 정확한 내막은 더 자세한 부연 설명이 보태져야 합니다.

예컨대, 2010년 3월26일 사고 당일의 사고시각은 저녁 9시47분 간조(干潮)시각에 가까운 시각이었으며, 백령도 주민들은 천안함의 침몰지점 수심이 24m로 알려져 있지만, <썰물 때는 수심 4m 안팎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2010년 3월27일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합참은 천안함 사고지점 수심이 24m라고 밝혔지만, 백령도 주민들에 따르면 간조시각에 가까운 때에 사고를 당한 천안함 사고지점 수심이 겨우 4m 안팎에 불과하게 되어 천안함이 좌초(坐礁)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백령도 주민 조모(47)씨는 "이 섬에 태어나 살면서 대형초계함이 백령도 앞 1마일 (약 1.8km)까지 다가온 것을 본 것은 처음"이라며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침수 직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천안함 침몰해역의 수심이 24m 정도로 알려졌지만, 썰물 때에는 4m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얇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3월26일 간조(干潮) 저녁 9시47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29/0200000000AKR20100329206400065.HTML?did=1179m>

더군다나 반드시 유념하셔야 할 것은, 합참은 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국회 국방위 보고(報告)에서, 수심 24m의 천안함 사고지점이, 즉 20노트의 남서풍, 3m의 파고, 8도의 수온까지 체크된 사고 당시 상황발생현장이 마치 <백령도 서남방 1마일 지점>이었던 것처럼 보고(報告)했으나, 실은 이 수심 24m의 천안함 사고지점이 <백령도 남쪽의 동편 초소 기준 서남방 1마일 지점>이었다는 것이 여러 증언들과 증거들에 의해 뒷받침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백령도 서방이나 서남방이 아니라, 백령도 남쪽 동편의 장춘앞바다가 수심 24m의 진정한 천안함 사고지점이었다는 소리입니다. 군(軍)이 백령도 남쪽 동편의 수심 24m의 진정한 천안함 사고지점을, 처음에는 백령도 서남방 1마일 수심24m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로부터도 2.5km 북서쪽에 위치한 백령도 서방의 수심 47m의 소위 폭발원점으로 사고장소 자체를 조작(造作)했다는 소리입니다.



아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김태영 될 하는 데 이를 반이……

○金玉伊 委員 선미의 파악, 위치 장소 말이에 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선미의 위치 장소는 저희가 첫날 처음서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게 조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무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먼 거리까지 흘러 내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찾는 데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金玉伊 委員 함미는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밑으로 가라앉았지 않습니까? 장병은 거기 선미에 있다 이거예요, 함미.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구조하는 게 급선무지요, 함수보다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렇습니다.

○金玉伊 委員 그러니까 그 위치 파악을 빨리 하지 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최초 생각한 바로 그 지점이라고 판단하고 거기에서 계속 저희가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나중에 한 200m 정도를 이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가졌던 것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물론 바로 저희가 찾을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이 걸려 있다는 것은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玉伊 委員 그러나 국민들께서도 폭발된 장소가 섬과 섬 사이이기 때문에 파고가 3m 이상

없었다고 합니다.

第288回 國會 國防委員會

그리고 수도통합병원의 ~~확(臨時)을~~ 보면 처음에는 화상이었다고 하는데 ~~臨時 2010年3月29日(月)~~

○국방부장관 김태영 없습니다.

○金玉伊 委員 거의 요추라든지 또는 경추 또는 무릎 통증 이런 환자들입니다, 보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어쨌든 외부 충격으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자들의 상태나 그런 것을 봤을 때 외부의 큰 충격이 아닌가 저희도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다 정밀한 점검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金玉伊 委員 예,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 주변에는 압초가 분명히 없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없었습니다.

○金玉伊 委員 화약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증언에 의하면?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거는 증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金玉伊 委員 그래서 여기서 수심이 30m 정도 밖에 없어서, 장관께서 판단하시기에 혹시 잠수정을 이용한 어뢰 공격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는 것이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이 화약 냄새가 나지 않았고 또 지금……

○金玉伊 委員 외부의 충격으로 봤을 때……

○국방부장관 김태영 예, 그래서 그것도 여러

23

-2010년 3월29일 국회 국방위 회의록 캡처 사진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none>

[천안함] 송영선 "北반잠수정 계류기뢰 공격 가능성 높아"

2010-03-29 11:44:19

송 의원은 침몰 장소의 수심이 얕아 북한의 잠수정이나 반잠수정이 어뢰를 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현장의 수심이 24m밖에 안 되고 해류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부유기뢰를 설치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그러나 반잠수정의 (매복공격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백령도 남쪽

그는 "수심 24미터 백령도 남쪽 1.4km 지점은 잠수함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기 어렵지만 반잠수정으로 계류기뢰, 소위 말하는 부력을 가진 기뢰 본체를 무거운 추에 줄로 연결해 수중에 설치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래희망연대 의원 국방통 송영선이 2010년 3월29일 오전 SBS 라디오 '서두원, 최영주의 전망대'에 출연해서 한 발언. https://newsis.com/view/?id=NISX20100329_0004759095

第289回 國會 本會議
(臨時會)
2010年4月2日(金) 午後 2時

5. 천안함 침몰사건 관련 긴급현안질문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렇게 멀리 잠항을 했으리
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꽤 먼 거리에서 보이
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저희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은 저희가 열
어 놓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 잠수정들이 천안함 침몰과 관
련이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가능성을 다 열어 놓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북한 잠수정이 과거에도 우리 한
국 앞바다에 침입했던 적이 여러 차례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반
잠수정을 말씀하시는 건데……

○김동성 의원 예, 반잠수정.

○국방부장관 김태영 반잠수정 같은 경우는 두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전부 남해안 쪽에, 다대포 지역과
그다음에 전라남도 쪽에, 그때 해남 쪽인가 그쪽
에 침투한 적이 있었습니다.

○김동성 의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두 번 침투가
아니고 두 번 우리가 적발했다는 것이겠지요?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말씀하시는 북한의
반잠수정은 배가 작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기뢰를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리고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남쪽이 수심이 2, 30m로 낮고 또 조류도 빠르고
또 육지에 가까워서 초계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
의 성능 발휘가 어려워서 반잠수정 탐지가 어렵
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의 유사한 정도라고 판단…… 말씀이 대충 맞
습니다.

○김동성 의원 천안함과 속초함이 침몰 직전까
지도 계속 교신을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천안함과 그 2개 함정 사
이에는 교신을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2개 함
정이 인접해 있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작전 지
역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2개 함정 사이에는 교
신이 없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것 제가 보고받은 거랑은 좀
다른데요? 교신했다고 나왔는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것은 뭐냐 하면 2함대에
서 그 모든 함정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2함대
에서는 각 함정별로 각각 통제하는……

○김동성 의원 2함대와의 교신 내용이다? 6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렇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 사고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초
소가 어디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거기에 있습니다. 백령도에

第289回 國會 本會議
(臨時會)
2010年4月2日(金) 午後 2時

제289회-제1차 13

가까운 데 초소가 있습니다.

○김동성 의원 몇 미터 떨어져 있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미터 수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동성 의원 제가 보고받기로는 한 880m 정
도인데……

○국방부장관 김태영 그 정도입니다.

○김동성 의원 거기서는 육안으로도 보이지요?
혹시 그런 것 비슷한 것 봤다는 병사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김태영 지금 1개 초소에서 물기동
인 것처럼 보였다 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
데 그것이 확인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동성 의원 그러면 기름탱크까지 터지고 했
다면 이것도 또한 어떻게 보면 어뢰나 기뢰에 의
한 공격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김태영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뢰
도 두 가지 스타일이 있는데 직접 직격하는 경우
에는 아마 그게 분명히 기름이 유출됐다면 불이
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
신 것처럼 버블제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경우
에 따라서 그게 불이 나지 않고 그리고 배가 파
괴되는 과정에서 유류고가 파괴돼서 기름이 누출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여부는 좀 상세
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폭발된 장소가 **섬과 섬 사이**이기 때문에」

「수심이 30m 밖에 안되서, 잠수정을 이용한 어뢰 공격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2010년 3월29일 국회 국방위 국회의원 김옥이)

「수심 24미터 **백령도 남쪽 1.4km** 지점은 잠수함이 매복해 있다가 공격하기 어렵지만 반잠수정으로 계류기뢰, 소위 말하는 부력을 가진 기뢰 본체를 무거운 추에 줄로 연결해 수중에 설치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2010년 3월29일 국회의원 송영선)

「-천안함이 침몰한 **백령도 남쪽**이 수심이 2, 30m로 낮고 또 조류도 빠르고 또 육지에 가까워서 초계함에 장착된 음파탐지기의 성능 발휘가 어려워서 반잠수정 탐지가 어렵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국회의원 김동성)

-정확하지는 않지만 거의 유사하다고 판단...그 말씀이 대충 맞습니다.(전 국방장관 김태영)」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초소가 어디지요? 몇 미터 떨어져 있지요? 제가 보고(報告)받기로는 **880m** 정도인데...(국회의원 김동성)

-그 정도 됩니다 (전 국방장관 김태영) 2010년 4월2일 국회 본회의」

위 국회의원들은 사건 초기 국회 등에서의 증언을 통해, 수심 24m의 천안함 사고지점을 <백령도 남쪽 1.4km>, <섬과 섬 사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합참은 2010년 3월27일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천안함 사고지점을 <백령도 서남방 1마일>로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당시 여당이나 여당계 의원들로, 김동성원의원의 본회의 발언에서 미루어 보아, 따로 해군이나 해경으로부터 보고(報告)받은 내용을 토대로 국회 본회의 등에서 질의, 발언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서해 침몰 초계함 승무원 구조작업 진전 없어

2010-03-27 새벽 02:40

(인천=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26일 오후 9시45분께 서해 백령도 서남방 해역에서 침몰된 해군 초계함에서 승무원 58명이 구조된 이후 더이상 구조 작업에 진전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해군과 해양경찰청 등에 따르면 침몰한 초계함의 길이는 80m이며 사고 해

역 수심이 25m라 **현재** 초계함은 선수만 물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다.

해군은 함정을 동원해 선수 주변을 맴돌며 물 위로 떠오르지 모를 생존자나 사망자를 찾기 위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註-함수 함미의 그 함수 개념이 아님) 침몰 함정에는 104여명의 승무원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시간이 흐를수록 인명피해 규모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편 해군과 해경은 승무원 구조를 위해 사고 해역으로 함정을 증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ps://www.yna.co.kr/view/AKR20100327016100065>

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새벽 02시40분 송고 연합뉴스 기사는, 당시 해경 뿐만 아니라 해군 역시 애초부터 진정한 <천안함 사고해역>이 수심 24~25m의 **백령도 남쪽 동편**의 <천안함 침몰해역>임을 익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3월 27일 새벽 **현재** 천안함은 백령도 남쪽 동편의 장춘 앞바다에 뱃머리만 내민 채 침몰해있었기 때문입니다.

해경은 사고 당일 저녁 백령도 남쪽 동편의 장춘 앞바다에서 생존자들을 구조한 후, 다음날인 3월 27일 새벽 02시 25분에 이 백령도 남쪽 동편 장춘 앞바다에 뱃머리를 드러낸 채 침몰해있는 천안함에 위치부이를 근접 투묘하여 설치한 바 있습니다. (좌표 37-54.318N, 124-40.970E). 이 <백령도 남쪽 동편의 천안함 사고해역>의 수심이 25m(해군 24m)여서, 27일 새벽 현재 88m길이의 천안함은 선수만 물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해군과 해경은 전했던 것입니다. (註-함수 함미의 그 함수 개념이 아님)

사고 당일 저녁 9시33분에 해경은 해군으로부터 천안함에 대한 구조 요청을 받을 때 천안함이 두동강났다니 하는 이야기는 전혀 듣지 못합니다. 해경은 승무원 구조현장에 가서도 천안함이 두동강난 것으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사고 다음날인 3월27일 날이 밝아 수색에 계속 참여할 때도 해경은 해군으로부터 천안함이 두동강났거나, 소위 함수와 함미가 수km 떨어져 이격(離隔) 침몰해 있다느니 하는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고 당일과 사고 다음날의 해군과 해경의 구조 수색 작업은 오로지 **백령도 남쪽 동편 장춘 앞바다**와 그 인근에서만 이뤄집니다. 3월28일에도 역시.

[서해서 해군 천안함 침몰] 국방부 지하에 긴급조치반 가동
입력 : 2010-03-27 01:34

26일 밤 해군초계함 침몰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부는 긴박하게 움직였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북한의 도발에 의한 것일 수 있다는 가능성에 초비상 상태에 들어갔

으나, 시간이 갈수록 북 도발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면서 안도하는 모습이 었다.

우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침몰 사고 소식을 접하자 사태의 진위를 파악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다. **26일 오후 9시45분쯤 합동참모본부**에 “백령도 **남쪽**에서 임무 중이던 초계함에 폭발이 일어나 침몰하고 있다”는 **첫** 보고가 전해졌다. 이 보고는 **김태영 국방장관**과 이상의 합참의장에게 곧바로 전달 됐으며 청와대에도 즉각 보고됐다.

합참은 10시4분 27명으로 구성된 긴급조치반을 긴급 소집해 사태파악에 나섰으며 국방부는 10시30분 장광일 정책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60명의 긴급조치반을 통해 원인파악과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긴급조치반은 국방부 지하에 있는 지휘통제실로 집합해 백령도 현지부대로부터 시시각각으로 보고를 받았다. 김 장관은 곧바로 원 인파악과 인명구조에 들어가라고 명령했다. 군은 일단 북한의 특이동향은 보이지 않아 전군에 경계령을 내리지 않는 않았지만 해군은 전군에 비상소집령을 내렸다.

평택 2함대 사령부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부대는 북한군의 특이 동향에 대한 파 악에 들어갔다. 또 사고가 발생한 백령도 현지 부대인 해병 6여단은 인명구조를 위한 지원병력을 요청했다.

해군본부를 비롯해 평택 2함대사령부, 해군 서울사무실에는 관계자들이 속속 모여 들었다. 갑작스런 사고소식에 해군본부 관계자는 “사고원인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일단은 인명구조가 우선이라 구조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544593>

[[해군 초계함 침몰] 칠흑같은 밤... 함정 총출동, 밤샘 인명구조

2010-03-27 03:00

주변 해역 샅샅이 수색... 국방부 위기관리반 가동
지휘관들은 부대 복귀... 경찰도 乙호 비상령

해군은 **26일 밤** 1200t급 초계함 '천안함'이 침몰한 서해 백령도 **남쪽** 해상에 동원 이 가능한 모든 함정을 총 출동시켜 밤샘 인명구조 작업을 벌였다. 천안함은 27일 0시30분 현재 80% 이상 침몰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해상** 인근에는 구조작업을 벌이는 함정 등에서 쏘아올린 조명탄으로 주변이 환하게 밝혀지기도 했다. 구조가

벌어지는 해역의 기상은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 관계자는 "사고해역 인근에 있던 고속정 편대와 고속단정(RIB)을 긴급 투입했다"며 "정확한 인명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해경도 인근 해상에 있던 경비함 2척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군 관계자는 "폭발하고 침몰하는 천안함에서 바다로 뛰어내린 승조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주변 해역을 샅샅이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각 현재 구조된 승조원은 58명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군경(軍警) 구조대는 나머지 46명에 대해서도 밤샘 수색작업을 벌였다.

이날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는 비상이 걸렸다. 이상의 합참의장등 군 수뇌부는 속속 부대로 복귀했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주요 안보관계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청와대로 향했다. 합참은 26일 오후 10시4분 작전본부장을 반장으로 하는 위기관리반(17명)을 가동했으며, 국방부는 오후 10시30분 정책실장을 반장으로 하는 위기관리반(60명)을 가동했다.

군 당국은 이번 초계함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크게 두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즉, 초계함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북한측에서 부설한 기뢰 등 은폐폭발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다. 만약, 기뢰 등에 의한 폭발로 밝혀질 경우, 남북간 군사적 대치가 극한적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함포나 해안포에 의한 공격 가능성은 일단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뢰 등에 의한 공격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군 관계자는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는 수심이 깊지 않아 잠수함을 통한 어뢰 공격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배 밑바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기뢰에 의한 침몰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해상에서 포 사격이 있었다는 제보와 관련, 합참은 작전 중에 초계함 레이더 상에 미상 물체가 포착돼 경고사격을 했다"면서 "레이더에 포착된 형상으로 보아 새떼로 추정되나 내용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도 사고 후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일원에 을(乙)호 비상령을 내렸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27/2010032700123.html

[해경 구조보트 4척 있는데... 해군 “2척만 보내라” 실랑이

2010-03-31 03:00

...해군은 천안함이 폭발과 함께 두 동강이 나면서 사고현장에서 순식간에 침몰한 함미(艦尾)에 대다수 실종자가 갇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면서도 왜 사고 초기부터 함미 수색에 집중하지 않았는지도 논란거리다.

사고 이튿날인 27일 **침몰 해역 주변**에서 더는 생존자나 사망자가 발견되지 않자 나머지 실종자들은 주로 함미에 남아 있다고 **해군과 해경은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군은 해난구조대(SSU)를 함미에 잠수시켜 실종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데 집중하지 않고,.... 함수 수색에 나서는 등 갈팡질팡했다**는 것이 현장을 지켜본 해경 관계자의 설명이다. [註-기사가 보도된 3월31일은, 3월 29일 오전 해군이 백령도 서방 수심 45m권에서 함미(실은 미상침선)를 발견했다고 거짓말을 한 이후입니다. 해군은, 해경이 해경 상황실에 반파위치와 침몰위치를 백령도 남쪽 장춘 앞바다에 그려놓은 것이 보도된 후 3월 28일에는 백령도 서남쪽 1마일에서 함미는 가라앉고 함수는 7.4km를 표류해갔다고 강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합참 관계자는 “함수와 함미의 수색에 모두 최선을 다했지만 함미가 180m 휩쓸려가서 가라앉아 정확한 지역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뿐, 함미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경 관계자는 “사고 원인도 미스터리이지만 사고 뒤 보인 해군의 수색구조작업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았다”고 말했다.]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100331/27244576/1>





바로 위 그림은 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오후 6시경 합참이 청와대 지하병커에서 브리핑하면서 띄운 화면 모습입니다. 이날 합참은 오후 3시 개의원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천안함 사고지점을 **백령도 서남방 1마일** 수심 24m라고 밝힌 바 있지만, 위 청와대 지하병커에 띄운 백령도 상황판에는 오로지 **백령도 남쪽** 동편 장춘 앞바다에만 녹색원이 사고, 구조, 수색지역으로 그려져 있을 뿐입니다.

합참이 밝힌 <수심 24m의 천안함 사고지점>이 **백령도 서남방 1마일**이 아니라 바로 <백령도 남쪽 동편 초소 기준 서남방 1마일 지점>인 백령도 남쪽 장춘 앞바다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상황도입니다. 20노트의 남서풍, 3m 파고, 8도의 수온까지 파악된 <어제 상황 발생 현장>이 만약 합참의 주장처럼 **백령도 서남방 1마일지점**이었다면 이를 청와대 병커 상황판에 결코 띄우지 않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수색을 위해서도.**

[-합동참모본부정보작전처장 이기식 합참 정보작전처장:

이기식 준장입니다. 지금부터 아 함정 원인 미상 침몰 관련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어제 3월 26일 21시 30분경 **백령도 서남방 1마일 해상에서** 아 초계함인 천안함이 원인 미상으로 **침몰된** 상황 관련 보고입니다. **어제 상황 발생 현장**의 기상은 남서풍이 20노트로 불었으며 파고는 3m였습니다. 수온은 8도였습니다. 선저에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파공으로 침수가 발생하면서 배가 침몰되었습니다. **사고 지점의 수심은 24m**였습니다. 상황 발생 후 야간 조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 3월27일 오후 3시 개회 국회 국방위 회의록 2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none>

이는 역시, 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오후 3시 개의회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 이기식 작전정보처장과 유승민의원 간에 이뤄진 아래 질의 응답 내용으로도 증명됩니다.

- 劉承旻 委員

지금 천안함이, 이 배가 혹시 두 동강 났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

- 합동참모본부정보작전처장 이기식

그것은 지금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 劉承旻 委員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두 동강이 났는지 구멍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전혀 없다 이겁니까?

- 합동참모본부정보작전처장 이기식

예, 그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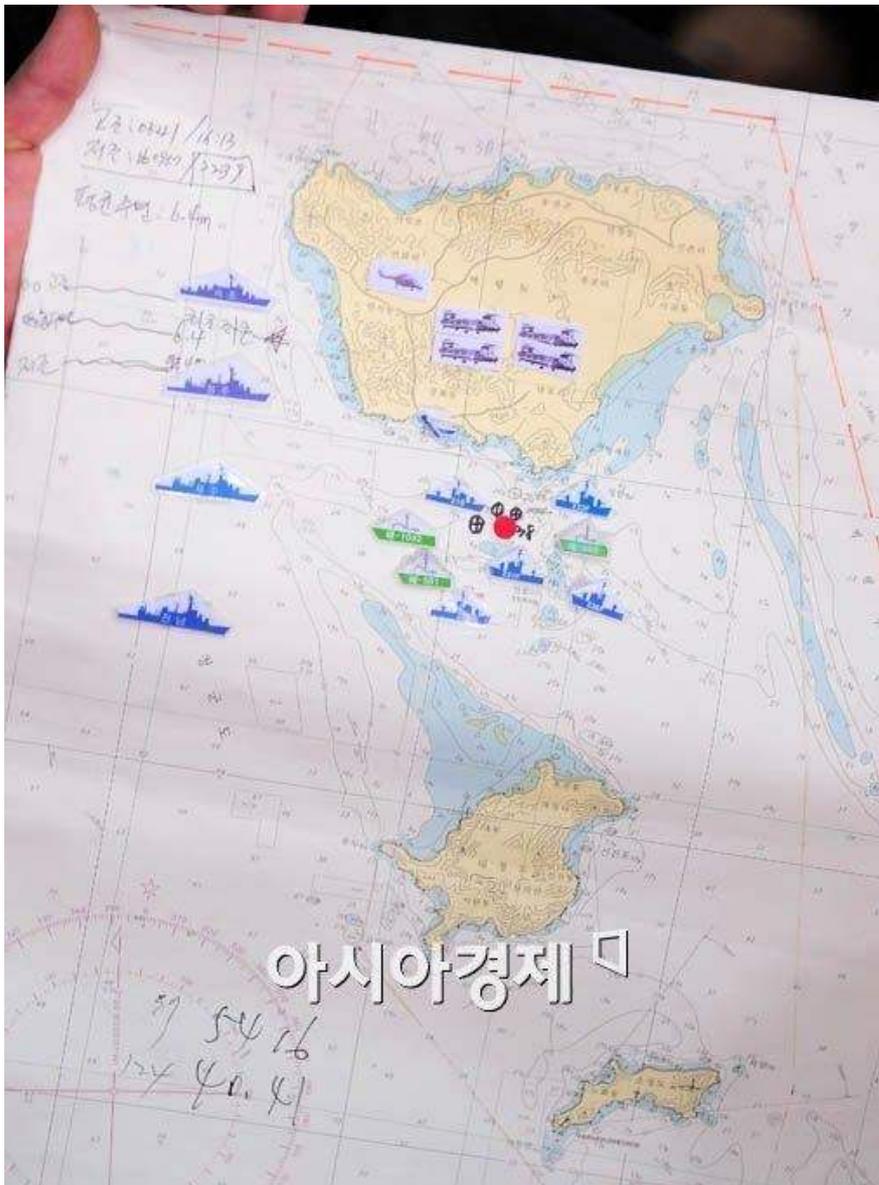
2010년 3월27일 오후 3시 개회 국회 국방위 회의록 2페이지/ 35~38페이지

<http://likms.assembly.go.kr/record/mhs-40-010.do#none>

이 자리에서 합참 이기식 작전정보처장은 「지금 천안함이, 이 배가 혹시 두 동강 났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까?」라는 유승민의원의 질의에 「그것은 지금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3월27일) 종일 두 동강이 났는지 구멍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된 게 전혀 없다 이겁니까?」라고 확인차 다시 묻자 「예, 그렇습니다.」라고 답합니다.

그러니 사고 다음날인 3월27일 오후 3시 국회 국방위 합참의 보고(報告)는 아예 함수·함미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입니다. 두동강 여부가 파악된 게 전혀 없는데, 두동강이라는 전제 자체가 없는데 함수·함미 개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3월27일의 국방위 합참 보고에서는 오로지 <천안함>만 언급됩니다. 2010년 3월 28일에 와서야 천안함의 두동강이 이야기되고, 그때서야 함수 함미가 언급됩니다.

이런 합참이 3월27일 오후 6시경 청와대 지하벙커에서 보고하면서 백령도 남쪽 동편의 장춘 앞바다에만 녹색원으로 사고·침몰·수색 지역을 표시하고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합참의 (거짓)주장처럼 만약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방 1마일 지점에서 사고가 났다면, 그리고 해경이 사고 당시 오인(誤認)한 것처럼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방 1마일 지점에서 침수가 되었고 백령도 남쪽 동편 장춘 앞바다까지 천안함이 5km를 표류해 왔다면 청와대 벙커 상황판에 표시되어야 할 수색지역은 그 꺾적을 따라 백령도 서남방에서 남쪽 동편까지 길게 표시되었어야 할 것입니다. 수색을 위해서라도.



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오전 해군2함대사가 실종자가족들에게 사고 · 구조상황을 설명하면서 내보인 위 상황도에도 백령도 서남방 1마일에는 어떤 사고 · 구조지표도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로지 백령도 남쪽 동편 장춘 앞 바다에만 빨간점이 표시되어 있고, 그 주위에 해경함 3척(푸른색)과 해군함 5척(파란색)이, 검은 동그라미로 구명벌 3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실종자 유가족 이용기씨는 이때 천안함 함장 최원일의 직속상관인 22전대장 이원보대령이 <천안함>이 이 빨간 지점에서 좌초(坐礁)했다고 밝혔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원보 역시 이때 <천안함>을 언급했을 뿐 함수 함미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은 이용기씨의 법정 증언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합참의 3월27일 오후 3시 국회 국방위 보고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 검사: "22전대장은 사고 원인에 대해 대답해주지 않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좌초라는 용어를 사용했나요."

= 증인(이용기): "모든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작전 현황도상 빨간 지점에서 좌초했다고 했습니다."

- 검사: "증인이 좌초 원인에 대해 물어봤더니 대답하지 않았나요?"

= 증인(이용기): "예."

445

- 변호인: "빨간 지점'이 침몰된 점이라고 했는데, '빨간 지점'에 함수가 침몰돼 있다고 하던가요, 아니면 함미라던가요."

= 증인(이용기): "처음에 유가족에게 설명할 때엔 함수와 함미 개념이 없었고, 함미가 떨어지나갔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고, 함수가 보인다는 이야기는 했습니다."

- 변호인: "작전상황도에 고조 저조 평균수면을 표시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증인(이용기): "해군에서 설명한 '빨간 지점'이 암초가 있는 해역이고 해도에 나와 있는 평균수심이 6m로 표시돼 있는데, 평균수심은 보통 해도의 고조와 저조의 중간을 평균수심이라고 표기하는데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 표기한 것입니다."

- 변호인: "그것을 파악하고 나서 그곳이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한 것인가요?"

= 증인(이용기): "작전상황도대로라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 변호인: "이날 아시아경제신문 기사 제목은 '사고지역은 초계함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그 당시 증인은 기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요?"

= 증인(이용기): "연봉지역에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447

-조현호 기자 책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중 실종자유가족 이용기씨 공판조서 중에서

[백령도 주민 조모(47)씨는 "이 섬에 태어나 살면서 대형초계함이 백령도 앞 1마일 (약 1.8km)까지 다가온 것을 본 것은 처음"이라며 "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침수 직전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천안함 침몰해역의 수심이 24m 정도로 알려졌지만, 썰물 때에는 4m 안팎에 불과할 정도로 얇은 곳이라고 주장했다.] (3월26일 간조(干潮) 저녁 9시47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29/0200000000AKR20100329206400065.HTML?did=1179m>

따라서 2010년 3월27일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이 밝힌 <수심 24m의 천안함 사고지점>은 백령도 서남방 1마일이 아니라 바로 <백령도 남쪽 동편 초소 기준 서남방 1마일 지점>인 백령도 남쪽 장춘 앞바다인 것입니다.

즉, 백령도 서방이나 서남방이 아니라, 백령도 남쪽 동편 장춘 앞바다가 수심 24m의 <진정한 천안함 사고지점>이었던 것입니다.

군(軍)이 백령도 남쪽 동편의 수심 24m의 진정한 천안함 사고지점을, 처음에는 백령도 서남방 1마일 수심24m로, 그리고 나중에는 그로부터도 2.5km 북서쪽에 위치한 백령도 서방의 수심 47m의 소위 폭발원점으로 사고장소 자체를 조작(造作)했던 것입니다. (註-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나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항소심 재판부 제출 의견서 참조)

따라서 백령도 서방에서 남쪽 장춘 앞바다로 소위 함수가 4마일(7.4km)를 표류해간 일도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사고 당일과 사고 다음날 오후 3시까지도 천안함이 두동강난 것을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사고 당일 저녁 9시56분, 10시10분에 백령도 서남방에 도착했다는 고속정 5척이 소위 표류하는 두동강난 함수를 에워싸고 5km여를 남쪽 장춘 앞바다까지 이동한 일은 애초부터 없었기 때문에, 합참은 국회 국방위 보고에서 「그것은 지금 아무도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뢰성은 가질 수가 없」으며, 사고 다음날인 3월27일에도 「하루 종일 두 동강이 났는지 전혀 파악된 게 없」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다소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를 대강을 일단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천안함 사건의 진정한 사실관계	군(軍) 주장 허위의 공식사고경위
천안함 사고지점 수심 24m	공식폭발원점 수심 47m
백령도 남쪽 동편 초소 기준 서남방 1마일	백령도 서남단 초소 기준 서남방 1마일
백령도 남쪽 장춘 앞바다 수심 24m 진정한 천안함 사고지점	백령도 서방 수심 47m 허위의 공식폭발원점
평소에는 수심 24~25m이지만, 간조 시각에는 수심 4m 안팎이 되는 백령도 남쪽 장춘 앞바다 사고지점에서 좌초(坐礁) 이후 두동강	백령도 서방 수심 47m에서 복한 어뢰에 의한 수중 비접촉 폭발로 인한 충격 파와 버블효과로 두동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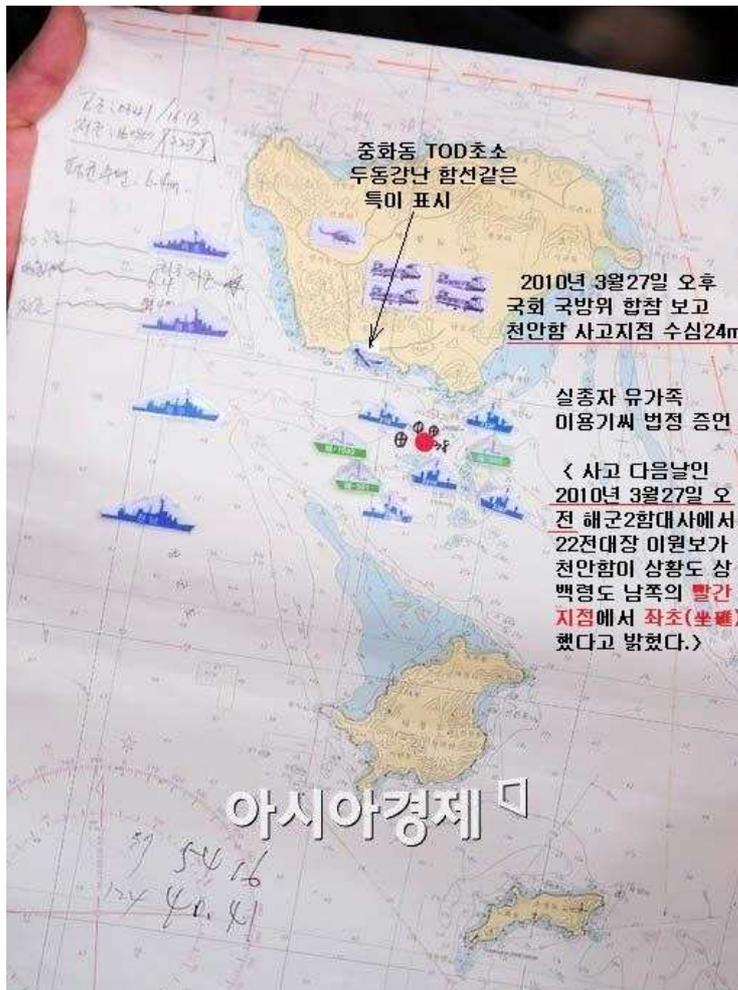


그림 출처-미디어오늘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219> 침삭

〈그림 2-6〉 피격 및 침몰 위치



-국방부 천안함 사건 백서 41쪽에 실린 군(軍) 주장 거짓 함수 이동경로 및 최종침몰위치 표시. 국립해양조사원은 사실조회를 통해 3월27일 13시37분 천안함(군 주장 함수) 최종침몰위치가 해도 상에 잘못 표기되어있음을 확인합니다. 바른 위치는 백령도 남쪽 해안초소 서남방 1.8km로, 수심은 24m였습니다.



위에서 <군(軍) 주장 허위의 공식사고경위>와 대비(對比)되는 <천안함 사건의 진정한 사실관계>의 대강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백령도 남쪽 동편의 장촌 앞바다 수심 24~25m지점이 천안함의 진정한 사고지점으로, 이곳은 평소에는 수심 24~25m이지만 간조(干潮) 시각에는 수심이 4m 안팎에 불과해 좌초(坐礁)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었으며, 천안함은 군(軍)의 허위의 공식사고경위와 달리 바로 이곳에서 좌초(坐礁) 후 침몰 과정에서 두동강났고, 함수는 물론 함미 또한 애초에는 백령도 남쪽에 침몰해있었으며, 따라서 백령도 남쪽에 각각 함수와 함미 침몰지점을 표시한 2개의 위치부표가 설치·출현될 수 밖에 없었으며, 바로 논란의 백령도 남쪽 용트림바위 앞바다 제3부표지점이 실은 <진정한 함미침몰지점>이었다는 것이 천안함 사건의 진정한 사실관계입니다.

그리고 애초 해작사, 해군2함대사, 해군탐색구조단 등 군(軍)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2010년 3월28일 오후 10시30분경 소해함이 백령도 서방의 수심 45m권에 오래전부터 침몰해있던 미상침선을 식별한 것을 마치 천안함 함미를 발견한 것인 양 기만전술을 펼친 후, 2010년 3월31일~4월3일 사이에 UDT·SSU 등 해군 수중 잠수사들과 광양함 등 구조함 세력, 미 해군 구조함 세력이 백령도 남쪽 용트림바위 앞바다 수심 24~30m의 제3부표지점에 침몰해있던 함미 양옆에 공기주머니를 부착해 수중 부양시킨 후 구조함의 예인 윈치 등과 와이어로 연결하여 야음을 틈타 비밀리에 수중 예인(曳引)하여 백령도 서방의 수심 47m지점에 가져다놓는 방법으로 사고장소를 조작(造作)했던 것이 천안함사건의 진상(真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군(軍)은 또한 이 물리적 사고장소 조작(造作)을 뒷받침하기 위해, TOD초소 위치와 열상감시장비인 TOD영상을 조작하고, 지질자원연구원 역시 적극적으로 이에 호응하여 지진파 공중음파 자료를 조작하며, 백령도 해병부대 역시 조작(造作)된 해병부대 상황일지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백령도 서방을 감시하던 247해안초소병들이 백령도 서북단 두무진 돌출부 인근에 목격, 청취한 백색섬광을 그로부터 동남쪽으로 5km여 떨어진 곳(허위의 폭발원점)의 있지도 않았던 북한 어뢰 폭침 물기둥으로 둔갑시키는 등 그야말로 패악적인 방법으로 전방위적 사건 조작(造作)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이를 증명하는 사례를 일단 하나만 들겠습니다. 바로 백령도 남쪽 장촌리와 중화동포구 주민들의 사고 당시의 경험담입니다.

형사사건이라면 사고현장 목격자(目擊者)에 해당할 분들인 이들 백령도 남쪽 주민들의 사고 당시 경험담은 KBS, MBC 등 주요 공중파 방송에서까지 다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이 분들의 증언에 주목해오지 않았습니다. 군(軍)이 완성한 허위의 공식사고경위에 매몰되다보니, 이들 백령도 남쪽 주민들이 사고 당시에 겪은 경험담 증언들

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전혀 실감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래 뉴스 캡처 그림들을 보시겠습니다. 군(軍)의 허위의 공식사고경위에 의하면, 백령도 남쪽 장춘리·중화동포구 주민들이 포소리(조명탄 소리)와 조명탄을 청취·목격한 시간대(帶)인 사고당일 저녁 9시30분~50분에 소위 함수는 저멀리 백령도 서방에서 표류 중입니다.

KBS NEWS

KBS 해군 초계함 침몰 속보
2010년 3월 26일 23시 35분

해군 초계함 침몰 [23시 35분 속보]

입력 2010.03.26 (23:40) | 수정 2010.03.27 (02:58)

속보·특보

0 5

가

자동재생 OFF



<http://news.kbs.co.kr/news/view.do?ncd=2070327>

[백령도 인근에서 경비 중이던 우리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고 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오늘 저녁 9시 반쯤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에서 경비중이던 경비함이 원인모를 폭발로 인해 침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동영상 1분15초부터) 한편 백령도 주민이 KBS에 전해온 내용에 따르면, 9시 반 무렵부터 20분 정도 함포 소리가 계속 났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또 중간 중간 끊기는 소리가 아니었고 지속적으로 대포 소리가 났다고 전해주었습니다.]

해군 초계함 침몰 [23시 35분 속보]

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070327

2010.03.27.
20:49

<기자>

어젯밤 예고도 없이 들려온 포소리에 백령도 주민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뒤 해군 초계함이 침몰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김옥자/백령도 주민 : 9시 30~40분? 그 정도 됐는데 씻고 나니까 포소리가 연속 몇 분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밖에 내다보니까, 계속 포소리가 나요. 한 10분?]

주민들은 밖으로 뛰어나와 항구로 모여들었습니다. (장촌 포구)

백령도 장촌 앞바다
천안함 침몰현장

[김진호/여객선 항해사 : 10시 조금 넘어서 현장에 도착을 하니깐 배가 완전히 가라앉지 않고 선미쪽으로 가라앉고 선두 부분은 많이 돌출돼서 튀어 나와있었고...]

상황이 다급하게 전개되자 주민들은 구조작업에 힘을 보탰습니다.

구조작업에 투입됐던 군경들은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김진호/여객선 항해사 : 병사들이 선두쪽에 많이 모여가지고 달라붙어서 살려달라고, 고탈 지르고 외치고...]

어민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사태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726735

<p>[주민 조모(46)씨는 "오후 9시30분께부터 10여분간 큰 포성이 들려 보통 사건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 "현재 해군 장병 30~40명이 용기포항에 이불, 물 등을 갖고 나가서 구조된 승무원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했다.]</p> <p>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0/03/27/0200000000AKR20100327005000065.HTML</p>
<p>[26일 오후 9시30분께 서해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에서 경비 중이던 해군 초계함이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침몰 중이어서 해군과 해경 등이 승무원들에 대한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 백령도의 한 주민은 "사고 후 15분 동안 초계함 승무원들의 구조작업을 위해 해군 함정이 조명탄을 쏠때 '핑핑'소리가 들렸다"라고 말했다.]</p> <p>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3191901</p>
<p>[백령도 주민들은 어젯밤 10시 전(前) 약 15분 동안 매우 큰 함포 사격 소리가 계속 들렸다고 말했습니다. 주민들은 해상에서 구조를 위해 계속 조명탄이 쏘아 올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p> <p>http://news.kbs.co.kr/news/NewsView.do?SEARCH_NEWS_CODE=2070329</p>
<p>[백령도 주민들에 따르면 약 15분동안 초계정 주변에서 포격소리가 들렸으며 우리 초계정이 침몰하면서 포격소리가 그쳤다고 전했다.]-2010-03-27 00:37:37</p> <p>http://www.todaykorea.co.kr/news/contents.php?idxno=104897</p>

시사인
2010.04.09
백령도 이오성 기자

<죽발집 배달차까지 취재차로 변신한 백령도>

"사고 당일 밤에 집에서 '짹'하는 쪽발음을 들었다. 조금 있다 밖에 나가보니 조명탄을 쏘고 있더라"

<김규복씨(75) 사고해역과 가까운 중화동포구에 사는 주민>



<https://www.sisa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40>



천안함, 그 후 1년.. 백령도는 기억한다

입력 2011-03-24 22:25 | 수정 2011-03-24 22:38



천안함이 침몰했던 백령도는 지금 겉으로는 평온해보이지만, 아직도 그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안고 있습니다.

백령도 그 사건의 현장을 조의명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천안함, 그 후 1년...백령도는 기억한다

2011-03-24 22:25
조의명 기자

VCR

백령도 장촌 포구.

까나리잡이 준비가 한창인
이곳은 1년 전,

천안함의 침몰이 가장 먼저
목격된 곳입니다.

주민들은 그때의 충격과 공포를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INT 김길녀/백령도 주민 (장촌포구 주민)

"짱 하면서 소리가 나더니
한참 이따 또 났어. 창문을 열어보니
휘발유인지 기름 냄새가..."

https://imnews.imbc.com/replay/2011/nwdesk/article/2818664_30473.html

SBS
NEWS

8뉴스 |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충격...백령도의 표정은

2011.03.26
21:01



장촌포구

오전부터 포구에는 부지런히 어선들이 오가고, 4월 까나리잡이 철을 대비해 그물을 손질하는 어민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장촌포구

일상에 파묻혀 걸으면 평온해 보이지만 주민들의 마음 속에는 1년 전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장촌 포구

[장주봉/주민 : 그 때 한 아홉시 조금 넘은 시간 같은데, 조명탄도 뜨고 헬기도 왔다갔다 하고, 섬사람들 놀랐죠.]

훈련 포격 소리나 부쩍 찾아진 경고방송이 들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섭니다.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0884684

[천안함 침몰사건은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정부는 백령도 서쪽 연화리 앞바다에서 발생했다고 우겨 왔다.

그러나 사건 직후 필자가 백령도 연화리에 가서 그곳 출신 친지의 부모에게 물어본 결과 자신들은 저녁 늦게 TV를 보고 사고 소식을 처음 알았고, 바닷가로 나가 봤지만 특이한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했다.

반면 (백령도 남쪽) 장촌리 식당의 주인은 사고 당일 저녁 화투놀이를 하고 있던 중에 장촌리 항구 쪽에서 팡하는 굉음이 들렸고, 여럿이 바닷가로 나가 보니 헬기 소리가 요란하고, 조명탄이 계속 터지고, 승조원들의 외침도 들리고, 어민들이 배를 타고 구조하러 나갔으며 묻지도 않은 사실을 전해 줬다.]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88>

위에서 보신 것처럼, 백령도 남쪽 장촌리와 중화동포구 주민들은 사고 당일 **저녁 9시 30분경부터 10~20분간**에 걸쳐 포소리, 즉 조명탄 소리와 조명탄 섬광을 청취·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사에 따라서는 「백령도 주민(들)」로 표현해서 혹 이들의 거주지역이 백령도 남쪽이 아닌 다른 곳일 수

도 있지 않느냐고 재판장님께서서는 생각하실 지도 모르나, MBC, SBS의 인터뷰에 직접 응한 분들(김옥자, 김길녀, 장주봉씨)은 백령도 남쪽 장촌리(장촌 포구) 주민들임이 분명히 확인되므로, 그리고 사고 당시 백령도 남쪽 장촌 앞바다 초계함 사고, 침몰현장에 가까운 백령도 남쪽 주민들만이 동일한 경험을 공유했을 것이므로 사고 당일 저녁 9시30분부터 포소리(조명탄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한 분들은 백령도 남쪽 주민들, 특히 거의 대부분 장촌리(장촌포구) 주민들이라고 상정해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백령도 서방이 사고 장소라 주장하는 군(軍)과 합조단의 주장과는 달리, 백령도 남쪽 장촌리(장촌포구)와 중화동 주민들이 사고 당일 저녁 ‘굉음’ ‘굉하는 폭발음’이나 두번의 ‘짱’하는 소리로 표현되는 큰 충격(파괴)음을 들었다고, 그리고 저녁 9시30분경부터 10~20분동안 조명탄 소리(포소리)와 섬광을 청취, 목격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촌포구 주민 김길녀씨의 경우 두번의 짱하는 소리 후 창문을 열어보니 기름 냄새가 났다고까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아래 그림은 군(軍) 주장 TOD의 방위각을 이용한 소위 함수의 표류 경로와 그 시간대(帶)입니다. 소위 함수는 저녁 9시30분~50분에 백령도 서방에서 표류 중입니다



허위의 군(軍) 주장 TOD와 공식사고경위에 따르면, 백령도 서방에서 두동강 사고를 당했다는 천안함의 함수와 생존 승조원들은 사고 당일 저녁 10시 10분까지도 백령도 서남방을 전혀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녁 10시8분의 TOD사각지역 진입시각 등을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허위의 공식사고경위에 따르면 천안함 두동강 사태를 바로 앞에 둔 격이 되는 백령도 서방을 감시한 해안247초소 박일석, 김승창 상병은, 백령도 남쪽 주민들이 사고 당일 저녁 9시30분경부터 10~20분간 청취 목격한 포소리, 즉 **조명탄 소리와 섬광**을 전혀 듣지도 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저녁 9시30분경부터 해안247초소 기준 방위각 170도에서, 그리고 180도로 출현이 목격된 해군함정 3척과 **해군함(艦)** 역시 전혀 조명탄을 쏘아 올리지 않습니다.

이들 해안 247초소병들 진술서나 법정 증언 어디에도 이들이 사고 당일 저녁 9시30분~50분 시간대에 조명탄 섬광이나 조명탄 터지는 소리를 보거나 들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이들은 이 시간대를 포함해서 초소기준 방위각 170~180도에서 소위 ‘구조’가 이뤄지는 동안에도 그 어떤 조명탄 섬광과 조명탄 터지는 소리를 목격, 청취했다고 진술, 보고(報告), 증언한 바 없습니다. (註-진술서와 증언은 아래에 인용합니다)

사고 당일 저녁 9시23분에 백령도 서북단 두무진 돌출부 쪽에서 백색섬광과 짙는 소리를 단 한번 목격, 청취한 이후 **있다면**, 소위 ‘구조대의 불빛’을 보았다는 것, 즉 함정들의 함교 불빛이나 함상 등(燈)을 보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조명탄 소리나 섬광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자체가 없습니다.

그것은 소위 ‘구조’를 위해 해안247초소 기준 방위각 170~180도로 나타났다는 해군함정(艦艇) 3척이나 해군함(艦)에서 전혀 **조명탄**을 쏘아올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군(軍)이 공개한 TOD영상 역시 그런 모습을 전혀 포착한 것이 없습니다.

그 깜깜한 밤에 말입니다. 공식사고경위에 따르면 전원이 다 나간 소위 함수는 보이지도 않을텐데 말입니다. 하물며...

사건 초기, 해군(海軍)은 사고, 구조 상황에 대해 해경(海警)과 다른 말을 한 바 있습니다.

["해군은 손 못쓰고 해경이 구조" 해군 발표와 다른 해경의 최초 상황 증언
2010-03-29 01:35

◇“바다에 병사가 빠지는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갔다” vs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원활한 구조가 진행됐다”=사고 당시 58명의 생존자 중 해경이 56명, 인근에 있던 어업지도선이 2명을 구조했다. 해군 측은 사고 당시 상황을 설명할 때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병사가 있는 등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는 설명을 되풀이했다. 합참 박성우 공보실장은 28일 브리핑에서 “56명을 전부 해경이 구했다는 게 맞느냐”는 질문에 “해경만 구한 것은 아니다”며 “나중에 말하겠다”고 얼버무렸다. 하지만 해경 및 일부 목격자들은 전반적으로 구조는 차분한 상태에서 원활히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생존자들이 겁에 질려 있었다든지 먼저 구조되기 위해 몸싸움을 벌이는 등 천안함 안이 아수라장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2시간여에 걸친 구조과정 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지는 않았고 차분하게 구조가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구조에 참여한 해경 관계자들에 따르면 사고 당시 천안함 갑판에 올라 있던 병사 중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사람은 약 3분의 1에 불과했다. 갑작스러운 사고에 상당히 놀라고 당황한 표정이었으나 비교적 차분한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렸다는 게 목격자들의 전언이다.]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03548028>

군(軍)은 천안함의 사고, 구조 당시 상황을 설명하면서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병사가 있는 등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에 반해 고속단정 2척으로 저녁 10시30분에 천안함에 접촉, 생존자 구조를 시작한 해경은 「2시간여에 걸친 구조과정 중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지는 않았고 차분하게 구조가 마무리됐다」고 구조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물론 군(軍)과 해경이 구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이 다른 것은, 시간차(時間差)를 두고 도착한 해군과 해경이 목격한 구조 당시 상황이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군(軍)의 사고, 구조 당시 상황에 대한 설명처럼, 「바다에 빠져 허우적대는 병사가 있는 등 매우 급박한 상황이었다」면, 그리고 그 사고, 구조 현장이 군(軍)의 주장처럼 백령도 서방이거나 서남방이었다면, 백령도 서방을 감시하는 해안247초소병들은 저녁 9시30분 경부터 방위각 170도로 온 해군함정 3척에서 구조를 위해 수없이 쏘아올리는 조명탄 섬광을 반드시 목격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조명탄 소리를 반드시 들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군(軍)이 언급한 상황에 대한 합당한 구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령도 서안 247초소병들은 전혀 이를 목격, 청취한 바 없습니다. 진술서와 법정 증언 그 어디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백령도 서안 247초소병들은 전혀 듣지도 못한 그 조명탄 소리(포소리)를, 다름 아닌 백령도 남쪽 장촌리 주민들은 저녁 9시30분경부터 10~20분 동안 들었다고,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증언해준 것입니다. 그리고 백령도 남쪽 장촌리와 중화동포구 주민들 중에는 조명탄 섬광을 목격했다고 증언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군(軍)이 주장하는 TOD영상으로는 백령도 서남방에서 고속정들이 소위 함수에 접근(저녁 9시58분)하기도 전인 그 시간대에 말입니다.



통상적인 알리바이의 의미와는 다르지만, 사고 당시 천안함이 백령도 서방이나 서남방에 있지 않았다는 현장부재증명(現場不在證明)입니다.

사고 직후인 저녁 9시30분경 천안함 생존자 병장 최광수 등이 갑판에 나와 정신없이 쏘아올린 조명탄을 해안247초소병들이 전혀 목격하지 못한 것도 이를 입증(立證)합니다.(후술)

백령도 서안 해안247초소병들은, 백령도 남쪽 장촌 앞바다에 저녁 9시30분부터 10~20분간 펼쳐진, 조명탄이 계속해서 터지던 **실제 천안함 사고, 구조 현장과는 다른 상황**을 이때 목격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 해안247초소병들이 저녁 9시30분경부터 초소 기준 170도~180도에서 등장을 목격한 해군함정(소형선박-고속정) 3척과 해군함(PCC로 추정되는 큰 선박-註:속초함이었을 것임) 1척은 위장 구조 상황을 연출하기 위해 출현한 것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부터 해군은 대외적(對外的)으로 <백령도 서남방 1마일>을 사고, 구조 장소로 조

작(造作)하기 위해 위장 구조상황까지 연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해경에도 백령도 서남방 1마일 좌표지점을 사고발생지점으로 통보하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이는 저녁9시 15분에 천안함에 최초 상황이 발생한 이후 군(軍)의 대처와도 관련됩니다.

[註: 천안함사건 의견서 최종보정본 5장(章) 참조. 해경은 해군으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고 도착해보니,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방 1마일의 신고된 사고해점으로부터 5km 동남쪽으로 흘러내려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해경이 군(軍)의 말만 믿고,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방 1마일 지점에서 장춘앞바다까지 5km 여를 표류한 것이라 오인(誤認)한 것입니다.]



— 변호인: “중인은 진술서에 ‘불빛은 심광처럼 보였는데, 좌우 둘 중에 좌측이 더 밝아보였습니다. 우측은 두무진 돌출부에 의해 불빛이 가려진 상태였습니다’라고 진술했는데, 심광처럼 보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 증인(박일석): “그날은 앞이 50m밖에 안 보일 정도로 해무가 끼어서 불빛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두무진 돌출부도 밝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당시 어단장에 보고하기로는 1~3초 정도라고 보고했습니다. (잠철 단에서 조사받을 때도 잠일 율령이 커서 심광 주변도 밝아보였다고 진술했습니다. — 당시 법정에서 기록한 것)”⁶⁵

박일석은 주위가 잠시 환해졌을 때도 조계함이 보이지 않았으며, 이후 불빛을 발견한 것도 구조대와 헬기의 불빛이었고, 그 위치는 해도상

탐조등을 어디로 비쳤나 (서쪽 바라보고) 9시 방향

PCC로 추정되는 선박을 향해 탐조등을 비춘 경위에 대한 증언도 있 김승창 상 술 서 시 소형선박 3여척과 PCC로 추정되는 큰 선박이 해상에서 계속 이동하 며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쓴 것과 관련해 김승창 당시 해병대 상병은 "예, 같이 비춰줬다"고 답변했다. 다만 이 선박이 천안함인지에 대해서

5. 천안함 판사지 않은 재판 481

는 "야간에 불빛의 크기를 보고 PCC로 추정했고, 천안함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탐조등으로 사고위치를 정확히 볼 수 있었는지에 대해 그는 "당시 탐조등을 켜던 것은 혹시 있을지 모를 생존자가 해안으로 헤엄쳐 올 수 있게 하려고 비쳤고, 사고 지점을 비출 정도로 가깝지는 않았"다며 해당 탐조등에 대해 "개논탐조등이고, 지름이 1.5m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탐조등을 비춘 방향은 9시 방향이라고 답변했다. 탐조등을 비추게 된 경위에 대한 그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 변호인: "탐조등을 꺼내서 비추라고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 = 증인(김승창 당시 백령도초령): "일반적으로 탐조등은 야간에만 정해진 시간마다 켜다 꺼다 하는데 그 당시에는 상황실에서 지시받은 것으로 기억합니다."
- 변호인: "언제 탐조등을 켜기 시작했나요?"
- = 증인(김승창): "전투배치가 된 이후부터 탐조등을 켜기 시작했습니다."
- 변호인: "탐조등을 어느 쪽으로 비쳤는가요?"
- = 증인(김승창): "처음에는 해상 쪽으로 전체적으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며 비추다가 해상 쪽에 선박들이 모여 있는 불빛을 보고 그쪽으로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 변호인: "평상시에는 좌측 몇 도 방향에서 우측 몇 도 방향으로 비추는 가요?"
- = 증인(김승창): "'ㄷ'자 모양으로 둘러면서 비춥니다."
- 변호인: "선박들이 모여 있는 불빛은 어느 방향인가요?"
- = 증인(김승창): "두무진 돌출부에서 정반대 방향입니다."
- 변호인: "정반대 방향이라는 것은 정면을 바라보았을 때 두무진 돌출부가 2~3시 방향에서 보인다면 그 불빛 보인 곳은 몇 시 방향이 되는가요?"
- = 증인(김승창): "9시 방향 정도 됩니다."84

그림 출처-조현호 기자 <천안함 7년 의문의 기록> 김승창 공판조서 등에서

[박일석 상병 진술서

필승! 62대대 6중대 60A+ 2포 부사수 상병 박일석은 후임 근무자 상병 김승창과 2010년 3월 26일 247초소 야간 2직 19:00~21:00까지 근무시간에 근무를 수행하던 중 21:23분에 낙뢰 소리와 비슷한 소리를 들어 '쿵'소리와 함께 하얀 불빛이 247초소 기준 방위각 $\angle 280^{\circ}4\text{km}$ 지점에서 보였습니다. 불빛은 섬광처럼 보였는데 좌·우 둘 중에 좌쪽이 더 밝아 보였습니다. 우측은 두무진 돌출부에 의하여 불빛이 가려진 상태였습니다. 야시장비(PVS-7)을 이용해 불빛이 일어난 쪽을 관측했는데 불빛은 2~3초 후에 바로 꺼졌고 그날 해무가 심해 시정이 500m여서 PVS-7으로 관측이 불가능하였습니다. 그 후 21:30분경 247초소 방위각 $\angle 170^{\circ}2\text{km}$ 지점에서 해군함정 3척이 와서 구조하였습니다. 해안 탐조등으로 247초소 근처 해안을 비추면서 해군 등이 이쪽으로 올 수 있게 비추었고 생존자가 있지 않을까 탐조등을 계속 비추었습니다. 그 후로 247초소 기준 방위각 $\angle 180^{\circ}3\text{km}$ 지점으로 해군함이 계속와서 좌초된 PCC를 구조했고 22:59분에 247초소 기준 방위각 $\angle 270^{\circ}6\text{km}$ 지점 아군함정이 경고사격 약 20발 정도 발사했고 그 후에 구조헬기가 247초소 기준 방위각 $\angle 160^{\circ}$ 방위각 $\angle 10^{\circ}$ 등 수많은 헬기가 구조하기 위해 초소와 연화리 위쪽을 날아 다녔습니다. 헬기 구조작업은 2010년 3월 27일 02:10경까지 계속 되었으며 02:40분경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승!

2010년 3월 28일 상병 박일석

김승창 상병 진술서

1. 본인의 직책은?

2010년 3월 17일 6초소 초병으로 62대대 6중대 해안중본으로 들어왔습니다. 초병의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사고 당시 본인의 임무는?

- 근무신고 / 투입시간 / 이동경로 / 근무장소는 ?

247초소 초병 후임근무자로 근무를 들어갔고 6소초에서 연화리를 거쳐 922포, 923포를 지나서 247초소로 근무진입을 하였고 근무지 진입시간은 21:15분 정도였습니다.

- 누구와 근무, 임무분담, 근무방법, 무엇을 이용 감시, 상황발생시 조치
상병 박일석과 근무였고 임무는 초병이며 관측을 함께 하고 보고는 선임근무자인

상병 박일석이 하였습니다. 근무방법은 PVS-7과 탐조등을 이용하여 관측하였고 두무진 돌출부부터 굴곡해안 일대를 관측하였습니다. 상황발생시 선임 근무자에게 보고하고 상황실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하였습니다.

3. 사고 발생 인지시간은? (무엇을 보고 시간을 확인했는지 등)

사고발생 인지시간은 광하는 소리를 듣고 손목시계를 이용하여 시간을 본 후 보고 하였고 근무진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무진입은 21:15 정도에 하였고 상황인지 시간은 21:23이었습니다. 전자손목시계를 착용하였고 TV뉴스화면 나오는 시간으로 맞추었고 분단위로 맞추었습니다. 사고이후 4월 1일경 알람을 맞추다 실수로 시간을 조정해 사고 당시 손목시계 시간과의 정확한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4. 사고발생 지점은? (평소 관측범위인지, 무엇을 보고 알았는지, 좌표나, 주변환경이나)

평소 관측범위였고 두무진 돌출부 쪽이었고 2~3시 방향으로 보았습니다. 두무진 돌출부는 시정이 좋지 않아도 위치가 잘 판단되는 지형입니다.

5. 사고당시 상황은? (누구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기술)

- 본 것 (섬광, 화염, 물기둥, 연기, 부유물 등)

광하는 소리와 동시에 4~5km로 추정되는 거리에서 하얀 빛이 퍼졌다가 소멸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빛 주변이 조금 밝아졌고 주변으로 퍼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시정이 좋지 않았고 가까운 거리가 아니여서 그 외에 것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당시 안경을 착용하였고 교정시력은 양안 다 1.0 이상입니다.

- 들은 것(충격음, 폭발음 등 지속시간, 느낌정도를 구체적으로)

광 소리가 깜짝 놀랄 정도로 낮고 한 번으로 났습니다. 부딪히는 소리보다는 폭발음에 가까웠습니다. 이후에 균함이 사격하는 소리를 같은 장소에서 들었는데 당시 사격 소리와 유사했고 사격소리보다는 더 크게 들렸습니다.

- 기타(침몰함정 주변이 의아물체, 부유물 등 목격 여부등)

야간시간이었고 시정이 좋지 않아서 빛 이외에는 다른 물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6. 사고발생 직후 어떤 조치를 하였나?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기술)

- 감시장비(장비명, 기능, 운용방법 등) 작동 여부

감시장비는 PVS-7으로 정상적으로 작동했고 1배율로서 야간광학장비로 관측할 때 사용하는데 사고 당시에는 맨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운용방법은 10분에서 15분마다 관측하거나 주변물체에 변화가 있을 때 주기적으로 관측하였습니다.

- 지휘보고 / 상황전파 등 초동조치 여부

광 하는 소리를 들은 후 선임근무자에게 바로 보고하였고 선임근무자(상병 박일석)가 바로 상황실에 보고하였고 계속 관측하였습니다.

- 출동인원(부대, 경찰, 민간 구분)

247초소에는 근무자가 계속 근무하였고 이후에 PCC좌초 인지후 연화리 쪽으로 중대본부 인원이 전투배치 하였다고 들었습니다.

7. 사고 발생전 이상징후 목격 여부?

- 침몰함정 기동상태

사고발생 전에는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 침몰함정 주변선박(의아물체 포함) 이동 여부

침몰함정 주변에는 없었고 의아물체로 판단되는 것도 없었습니다. 이동하는 물체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8. 근무투입 후 사고발생 시점까지 근무관계 및 보고상황, 개인행동 상황(동료 포함)은? (시간대별로 구체적으로 설명)

21:15분에 전근무자로부터 근무를 인계받고 선임근무자와 함께 밖을 관측하던 순간에 21:23분에 사고발생을 관측하였고 당시에는 PCC로 알지 못하고 천둥이나 낙

뢰로 보았습니다. 이후 선임근무자는 바로 보고하였고 저는 주변을 관측하였습니다.

9. 사고목격 당시 주변이 있던 사람은? (동료, 순찰간부, 기타 민간인등)

선임근무자 상병 박일석이 있었습니다.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10. 초계함이 침몰되던 상황은? (함수와 함미 구분하고, 침몰시간은)

초계함이라고 판단하지 못하였고 함수나 함미 등을 관측하지 못하였습니다.

11. 구조당시 상황은?

구조당시에는 소형선박 3여척과 PCC로 추정되는 큰 선박이 해상에서 계속 이동하며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박들이 크게 흩어지지 않고 가까운 거리에 있었습니다.

12. 기타 사항은?

당시에 초소 내부가 아니라 바깥에서 들었기 때문에 큰 소리를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당시 본 광경은 뒷 그림으로 첨부하겠습니다.

당시 거리는 대략 4~5km 추정하였고 가까운 거리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정이 좋지 않은 날이었고 해무가 끼여 있었습니다. 황하는 큰 소리가 났었고 깜짝 놀랄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소리와 동시에 하얀 빛이 퍼져서 나오는 모양을 목격했습니다. 빛 주변이 좀 밝게 보였고 퍼졌다가 다시 소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확히 판단할 수가 없어 선임근무자와 함께 천둥이나 낙뢰로 추정하여 보고하였습니다. 물기둥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2010년 4월 2일 진술인 상병 김승창

진술서

사건 당일 2010년 3월 26일 금요일에 상병 박일석과 함께 초소 근무를 명 받고 20시30분경에 근무진입을 시작하여 ○○○초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초소에 근무진입후 상병 박일석과 함께 ○○○초소의 외부 관측지역으로 나가서 관측을

하였습니다. 당시 탐조등 앞에 서 있었고 상병 박일석은 저의 오른쪽에 위치 하였고 관측 광 하는 소리와 동시에 하얀 빛을 관측하였습니다. 관측 후 21:23분에 손목시계를 이용하여 천둥, 낙뢰 소리를 들었다고 상병 박일석이 6중대 6소초로 상황실에 보고(報告)하였습니다. 소리는 광 소리였고 크게 들려 청취 시 놀랄 정도였습니다. 충격음 보다는 폭발음에 가까웠고 당일 두무진 쪽에서 아군군함의 사격을 청취하였는데 당시의 사격소리와 유사하였고 소리의 크기는 21:23분에 청취한 소리가 더 크게 들렸습니다. 광 소리는 단 한 번 들렸고 이 외에는 없었습니다. 하얀 빛을 관측하였을 때는 소리와 동시에 관측되었고 빛의 형상은 하얀색이었고 2~3시 방향이었으며 당시 시정이 좋지 않았고 해무가 기여 있던 상황으로 정확한 거리판단은 어려웠으며 4~5km 정도로 추정하였습니다. 모양은 관측시 퍼져있었다가 소멸하는 것이었고 빛 주변이 약간 밝아졌다가 사라졌습니다. 상병 박일석과 함께 천둥이나 낙뢰로 추정하였습니다. 날이 어두웠고 시정이 좋지 않아 이외에 부유물, 물기둥, 초계함을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관측시간은 보고할 때의 시간이었고 관측 후 보고가지 시간이 얼마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짧은 시간이었고 손목시계의 시간은 저와 상병 박일석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근무진입시간은 21:15분 정도로 기억하며 근무지에 들어간 후 처음 시간을 보았을 때가 21:15 정도여서 진입 시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물기둥 등 다른 것을 보았냐고 묻는 사람은 있었지만 물기둥 등 다른 것은 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위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010년 4월 4일 일요일 진술인 상병 김승창]

https://www.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icat=%C3%B5%BE%C8%C7%D4&table=%20pcc_772&uid=34&PHPSESSID=c1f56f52f59497ecca1ce8903de20a1e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사고 당시 함교 조타실에서 근무하던 생존자 병장 최광수는 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 27, 28일 해군 2함대사령부와 국군수도병원에서 만난 가족을 통해, 사고 직후에 갑판에 나와 동료들과 함께 정신없이 조명탄을 터트렸다고 전해준 바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조명탄을 쏘아올려 구조신호를 보내 비상상황을 대외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들 생존자들이 정신없이 조명탄을 터뜨렸을 시간대는 저녁 9시30분을 전후하였을 것이나, 백령도 서방 해역을 감시하던 해안 247초소병들은 생존자들이 사고 직후 갑판에 나와 터트렸던 조명탄 소리와 섬광에 대한 그 어떤 목격·청취 진술과 증언을 역시 해준 바가 없습니다. 전혀!

군(軍)의 주장처럼 백령도 서방이나 서남방이 천안함 사고지점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고지점이 다르지 않고서야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26일 밤 해군 초계함 천안함의 조타실에 근무하고 있던 최광수 병장(22)은 ‘꽝’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곧바로 정전이 돼 배 안은 암흑천지가 되고 배가 급격히 옆으로 기울었다. 순식간에 배 바닥이 벽이 될 정도였고 근무 중이던 후임 병사들이 조타실 핸들을 놓치고 나가 떨어졌다. 조타실은 아수라장이 되고 외마디 비명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순간 전쟁이 났다고 생각한 최 병장은 호루라기를 불면서 비상용 작은 칼을 끄집어냈다. 선임병인 그는 항상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이 칼을 휴대하고 있었다. 구멍조끼는 곳곳에 비치돼 있어 착용이 가능하지만 CO2조끼(물에 닿으면 자동으로 부풀어오르는 조끼)는 칼로 끈을 풀어야 착용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어 그는 기울어진 초계함 갑판 쪽으로 올라갔다. 갑판 위에는 2명의 사병들이 있었는데 그는 이들과 함께 호루라기를 불고 **정신없이 조명탄을 터트렸다**. 어딘가에서 “함장이 갇혀 있다”는 고함소리가 들렸다. 그는 다른 사병들과 함장실로 간신히 다가가서 도끼로 문을 부수고 함장을 (갑판 위로) 끌어올렸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0032901070143015002>

[.....이어 최광수병장은 기울어진 초계함 갑판 쪽으로 올라갔다. 갑판 위에 먼저 올라가 있던 2명의 사병들과 함께 호루라기를 마구 불어댔다. 그때 어딘가에서 “함장이 갇혀 있다”는 고함소리가 들렸고 그는 다른 사병들과 함장실로 간신히 다가가서 도끼로 문을 부수고 함장을 갑판 위로 끌어 올렸다.

그는 이어 **최원일 함장과 함께 조명탄을 터뜨리며**, 선실 내에 갇혀 있던 사병들을 구하기 시작했지만 함정은 급속도로 기울기 시작했다]

<http://www.kukinews.com/news/article.html?no=2949>

따라서 군(軍)이 주장하는 **공식사고경위**는 허위(虛僞)입니다.

백령도 서방해역에서 소위 **함수**와 **함미**로의 두동강을 그리고 있는 군(軍) 주장 TOD 역시 거짓된 조작된 것입니다. 디지털 이미지 포렌식(digital image forensic)도 거치지 않은 군(軍)주장 TOD는 증거능력(證據能力)이 있을 수 없습니다.

허위(虛僞)의 **공식사고경위**와 달리, 천안함은 백령도 남쪽 장촌 앞바다 수심24m 지점—썰물 때는 수심 4m안팎에 불과한 곳—에서 좌초(坐礁)된 후 침몰과정에서 두동강 나서 **함수**와 **함미**는 모두 애초에는 백령도 남쪽에 침몰해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 ① 백령도 남쪽 주민들이 사고 당일 저녁 장촌 앞바다 쪽에서 ‘굉음’ ‘짩하는 폭발음’ ‘짩’하는 충격음(파괴음)을 듣게 되고, 또한 저녁 9시30분경부터 10~20분간 백령도 남쪽 장촌 앞바다에서 조명탄 소리와 섬광을 청취, 목격하게 된 이유이며,
- ② 사고 직후 생존자 병장 최광수 등이 갑판에 나와 쏘아올린 조명탄을 백령도 서안 247초소병들이 전혀 목격할 수 없었던 이유이며,
- ③ 애초에는 천안함 함장 최원일의 직속상관인 22전대장 이원보가 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오전 해군2함대사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천안함이 백령도 남쪽 장촌 앞바다에서 좌초(坐礁)했다고 밝혔던 이유이며, (실종자 가족 이용기씨 법정 증언)
- ④ 사고 직후의 모든 해군과 해경의 구조 수색활동이 그리고 2010년 3월27일~3월28일까지의 해군탐색구조단의 모든 탐색 구조 작업이 백령도 남쪽 장촌앞바다와 그 인근(소위 함수 구역)에서만 이뤄진 이유이며,
- ⑤ 사건 초기 해군과 해경 간에 사고경위를 둘러싼 의견의 불일치가 존재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이며,
- ⑥ 신상철 피고인과 인양작업에 참여했던 인양전문가들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선

체 하단에 스크래치와 휘어진 프로펠러 등 좌초(坐礁) 흔적이 뚜렷한 이유이며,

⑦ 백령도 남쪽 동편의 <함수 부표>로부터 1.8km나 떨어진 곳인 용트림바위 앞바다에, <함수 부표>와는 다른 함체 침몰지점을 표시한 <제3부표>가 필연적으로 설치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이며,

⑧ 2010년 3월28일 오전 10시경 고속정이 측심기(測深機)로 사고해역 남서쪽으로 1.8km 떨어진 수심 25m에서 함미추정물체를 발견하고, 음파탐지기와 링스 헬기 소나를 이용해 생존자 여부를 탐색하고 있다고 해군2함대사가 실종자가족들에게 밝혔던 이유이며,

[해군2함대 사령부는 28일 "천안함 함미로 추정되는 딱딱한 물체를 오전 10시께 백령도 인근 사고 해역에서 남서쪽 방향으로 1.8km 지점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2함대 사령부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사령부 내 동원예비군 안보교육장 휴게실을 찾아 이같이 말하고 "함미로 추정되는 물체는 수심 25m 정도되는 곳에서 발견, 천안함 동체 가운데 떨어져 나간 부위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속정 측심기를 이용해 이 물체를 확인했고, 물살이 약해지는 정조 상태(오후 12시~1시) 때 심해잠수대(SSU)를 투입해 확인할 예정"이라며 "현재는 물살이 3노트 정도로 조류가 너무 빨라 물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0/03/28/2010032800237.html

[해군2함대사령부 “천안함 함미 추정 물체 발견”
음파탐지기·항공음속기 이용해 생존여부 파악 중

천안함 함미로 추정되는 물체가 28일 오전 발견됐다.

이날 2함대 사령부는 “함미추정물체를 오전 10시께 백령도 인근 사고해역서 남서쪽 방향으로 1.8km지점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2함대 사령부는 오전 10시 20분께 실종자 가족들이 모여 있는 동원예비군 안보교육장 휴게실을 방문해 함미로 추정되는 물체는 수심 25m 정도 되는 곳에서 발견, 천안함 동체 가운데 떨어져 나간 부위와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고속정 측심기를 이용해 이 물체를 확인했다”며 “현재는 물살이 3노트 정도로 조류가 너무 빨라 물체 확인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음파탐지기

와 항공음속기를 이용해 천안함 선체내 생존자 유무를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해군은 백령도 사고해역에서 이날 오전 5시35분부터 심해잠수사 86명과 고무보트 11척, 고속단정 1척 등을 동원해 수색작업을 펼치고 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0032811084433782>

⑧ 2010년 3월28일 저녁 10시30분 소해함이 백령도 서방의 군(軍) 주장 사고발생지점(폭발원점) 북서쪽 200야드 수심 45m에서 소위 함미를 발견, 식별했다고 군(軍)은 주장했지만, 그곳에 다름아닌 미상침선이 지금도 침몰해있는 이유이며,

⑨ 백령도 남쪽 동편에 뱃머리를 동쪽으로 향한 채 대청도 방향으로 90도 기울어져 침몰해있던 함수와 달리, UDT동지회원들이 2010년 3월30일 오전 용트림 바위 앞바다 수심 25~30m 제3부표지점에서 잠수 진입한 함체는 백령도 방향으로 45도 정도 기울어져있었던 이유이며,

⑨ 2010년 4월18일 백령도 서방의 소위 함미구역에 대한 사이드스캔소나(side-scan sonar) 탐색에서 해양연구원 조사선이 천안함의 주요파편인 가스터빈실, 가스터빈, 가스터빈 보호막, 하푼미사일, 발전기, 연돌 등을 전혀 발견, 식별되지 못한 이유이며,

⑩ 애초 2010년 3월27일 새벽 두 차례에 걸쳐서는 국가위기센터 등에, 백령도 서방이 전혀 아닌 대청도 서북방(37.85N, 124.56E)을 추정 진앙지로 보고했던 지질자원연구원 지진파 공중음파 자료를 사건 초기 군(軍)이 설불리 내세우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註: 하지만 지자연 이희일은 3월30일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백령도 서방으로 진앙지를 바꿈)



3월 26일 해군 초계함 침몰과 관련된 공중음파 신호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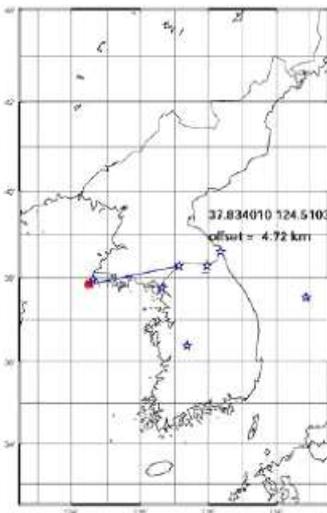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 작성
2010 3 27

- 추정 사고 시각 : 21시 21분 58초 (백령도 지진-공중음파 관측소 신호로부터 추정)
- 사고 위치 : 백령도와 대청도 사이로 백령도 관측소로부터 219.4도 방향 37.85, 124.56
- 약 177km떨어진 김포관측소 및 약 220km떨어진 철원관측소에서도 공중음파 신호가 포착된 것으로 미루어 폭발규모가 상당히 컸을 것으로 추정. 추정 지진규모가 1.5인데 이는 TNT 약 180kg에 해당
- 음파분석 결과: 관측소로부터 본 사고위치의 방위각

관측소명	방위각
백령도	219.4
김포	280
철원	258.8

● 지진파 분석결과

- 2010. 03. 26 21:21:55, 1.5(추정 규모), 37.85, 124.56 (위치)



10	2010-03-20	12:10:38	38.1643	125.7466	-	1.50	황남 신원 남쪽 약 8.05km	BRDAR
11	2010-03-22	1:12:15	41.4918	125.2255	-	-	평북 의주 북서쪽 약 182.19km (중국)	BRDAR
12	2010-03-22	10:51:39	37.8407	125.3866	-	1.53	황남 동진 남쪽 약 31.15km	BRDAR, BRD
13	2010-03-23	10:07:16	39.9549	125.8048	-	1.82	평남 안주 동남동쪽 약 13.47km	BRDAR
14	2010-03-23	22:28:21	36.6877	125.5507	-	1.81	중남 태안 서쪽 약 67.26km	BRDAR, BRD
15	2010-03-23	22:35:46	38.7281	124.1785	-	1.51	황남 과일 서북서쪽 약 79.79km	BRDAR, BRD
16	2010-03-24	0:03:10	38.5659	80.5922	4.60	-	TAJIKISTAN	BRDAR, BRD
17	2010-03-24	0:29:35	53.0212	172.3938	5.30	-	NEAR ISLANDS, ALEUTIAN ISLANDS, ALASKA	BRD
18	2010-03-24	0:51:52	37.5248	74.7862	4.60	-	HINDU KUSH REGION, AFGHANISTAN	BRDAR, BRD
19	2010-03-24	11:06:05	32.2700	92.1776	5.70	-	XIZANG-QINGHAL BORDER REGION	BRDAR
20	2010-03-24	11:44:53	32.7434	93.6461	5.50	-	XIZANG-QINGHAL BORDER REGION	BRDAR
21	2010-03-25	4:54:14	46.7327	152.8115	4.90	-	KURL ISLANDS	BRDAR
22	2010-03-26	21:21:58	37.8349	124.5387	-	1.47	황남 용연 남서쪽 약 45.20km	BRDAR, BRD

* 국외지진의 규모(mb)는 USGS 기준임.

3월 26일 천안호 침몰과 관련된 지진-공중음파 신호 분석 결과

2010.3.3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연구센터 **이희일** 작성

추정 사고 시각 : 21시 21분 58초 (백령도 지진-공중음파 관측소 신호로부터 추정)

사고 위치 : 백령도 관측소로부터 5km 떨어진 219.0도 방향 (그림 1참조)

백령도 관측소 중앙센서위치 좌표 : 37.9657, 124.6473 해발고도: 26m

지진신호로부터 계산한 지진파 규모는 1.5이며, 이는 TNT 약 180kg의 폭발력에 해당.

그러나 기뢰 또는 어뢰가 천안호 하부에서 폭발한 경우, 수면아래 10m 지점에서 폭발한 것으로 가정하고 공중음파 신호로부터 레일리-윌리(Rayleigh-Willis)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폭발력은 약 260kg의 TNT폭발에 상응.

관측신호로부터 폭발 원인을 직접 알 수는 없으나, 만약 내부 폭발이라면 아주 짧은 시간(1.1초)에 두 번 폭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그러나 공중음파 신호 양상으로 볼 때 외부폭발일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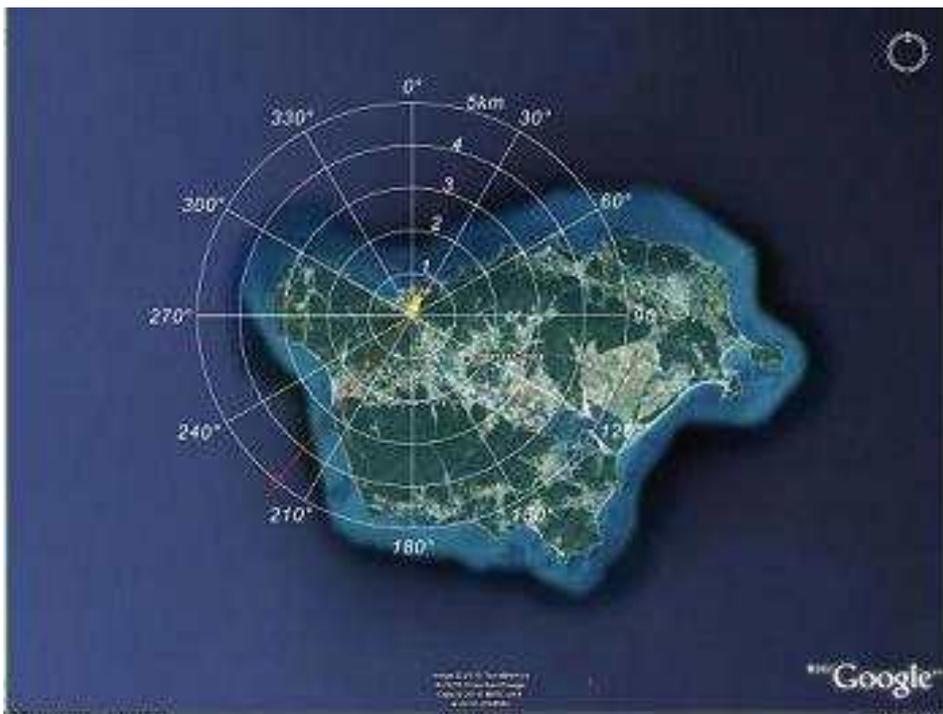


그림 1

<http://www.ibric.org/scicafe/read.php?id=10211&Page=1&Board=scicafe000692&FindIt=username&FindText=%C1%F8%C0%FA%BA%A3%C0%CC%C4%BF>

<백령도 남쪽 동편 초소 기준 서남방 1마일 수심24m 지점>은 <천안함>이 2010년 3월27일 13시37분 최종침몰한 위치이기도 하며, 군(軍)에 의해 단순 **함수최종침몰지점**으로 둔갑된 **수심 24m**지점입니다. 2010년 3월27일 오후 국회 국방위에서 합참이 **백령도 서남방 1마일**로 기망(欺罔)한 수심 24m의 천안함 사고지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천안함 함장 최원일의 직속상관인 22전대장 이원보 역시 애초 사고 다음날인 2010년 3월27일 오전에는 해군2함대사에서 실종자 가족들에게 천안함이 백령도 남쪽 장춘앞 바다에서 좌초(坐礁)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실종자 가족 이용기씨 법정 증언)

지금까지 천안함사건의 진정한 사실관계, 그리고 군(軍)이 주장하는 허위의 공식사고 경위와 이들의 사건 조작(造作)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항소심 재판부에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제출한 <천안함사건 의견서>는 이 모든 사건의 자세한 내막을 낱낱이 드러내고, 또 이를 각종 증거와 근거를 들어 입증(立證)하는 것이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재판부가 깊이 살펴보시고,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재조사(再調査) 필요성을 천명해주시기를 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심은 물론 항소심 재판부(윤강열 재판장)는 군(軍) 주장 공식사고경위의 허위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천안함사건의 <진정한 사실관계>를 자세히 규명해 볼 생각을 내지도 못한 채, 사고 자체가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던 백령도 서방 수심 47m의 소위 폭발원점에서 그것도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수중 비접촉 폭발로 인한 충격파와 버블효과로 천안함이 두동강났다는, 군(軍)이 심혈을 기울여 연출한 조작(造作) 시나리오와 합조단의 공상소설을 앵무새처럼 인용했습니다.

20노트의 남서풍, 3m의 파고, 8도의 수온까지 체크되었던 사고 당시 상황발생현장인 천안함 사고지점의 수심(水深)이 합참의 애초 보고(報告)처럼 24m였다면, 나중 합조단과 군(軍)에 의해 공식화된 백령도 서방의 수심 47m의 소위 폭발원점이나, 수심 47m의 이곳에서 건져올렸다는 북한 어뢰 추진체와 모터라는 것은 한갓 조작(造作)된 것에 불과하게 됨에도,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말입니다.

사법부를 비롯한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거짓과 진실을 판별(判別)할 수 있는 지성(知性)이 아예 없다는 개탄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꼭 수사(搜查)의 관점에서가 아니라도, 눈 밝은 평범한 시민들조차도 군(軍) 주장 공식사고경위의 허위성을 낱알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군(軍)의 사고 조작(造作)을 입증할 증거와 근거 자료는 차고 넘칩니다.

조사(調查), 수사(搜查) 대상이어야 할 군(軍)은 도리어 조사(調查)의 주체의 자리를 차지하고, 천안함 사건을 잊지도 않은 북한 어뢰 공격에 의한 폭침으로 조작(造作)해냈습니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이 나라의 사법부인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진실을 몰아내고, 거짓을 인용(認容) 공고(鞏固)히 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진실을 가려내 판별(判別)하고 이를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도리어 진실을 밝히는데 큰 해악(害惡)을 끼친 것입니다.

만약 상고심인 대법원 마저 1심과 항소심 재판부의 길을 따른다면, 천안함사건의 진실은 밝게 드러나지 못한 채 묻혀버릴 것입니다. 독립적 기관에 의한 재조사를 통해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법원과 같은 신뢰성 있는 공적 기관이 천안함사건 재조사(再調查) 필요성을 천명하지 않고서는 천안함사건에 대한 재조사(再調查)가 이뤄지기는 무척 어렵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부디 천안함사건과 관련한 군(軍)의 공식사고경위의 허위성을 꿰뚫어보시고, 천안함사건의 진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신 후, 천안함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천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항소심재판부에 여러차례에 걸쳐 제출한 <천안함사건 의견서>를 꼭 살펴보아주시기를 역시 바랍니다.